

19세기 서울시장의 구조와 특징

-물가 변동을 중심으로-

이영훈(서울대 경제학부)

1. 문제제기

17-19세기 서울은 인구 20만의 대도시였다.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인구 1-2만으로서 전국에 7개 정도였다. 서울은 발군의 대도시였다. 20만 도시인의 생활 자료는 상당 부분 시장경로를 통해 공급되었다. 쌀과 면포의 일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의 경로를 통해 서울에 공급되었다. 면포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재정경로로 공급되었다고 보인다. 쌀의 경우는 재정경로의 비중이 대략 1/3정도가 아니었을까 싶다. 이외에 자급부문도 있었다. 서울 인구의 1/6-1/7 정도는 직업이 농민이었다. 이렇게 비시장 부문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 20만 인구의 생활자료는 거의 대부분 시장을 통해 확보되었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그렇게 서울에서 성립한 전국 제1의 시장이 어떠한 성질의 시장인지를 주요 재화의 가격변동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가격의 변동이 생산, 소득, 화폐 등 여러 요인의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競爭市場이라고 할 수 있다. 물가에 충격을 주는 요인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非競爭市場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시장에서는 시장을 지배하는 수요자나 공급자가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비인격적 관계로 경쟁적으로 거래한다. 반면에서 비경쟁시장에서는 시장을 지배하는 수요자나 공급자가 있다. 오늘날의 독과점 시장에서는 공급자인 소수의 大企業이 시장의 지배자이지만, 전근대의 신분사회에서는 수요자인 소수의 貴族層이 시장의 지배자였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시각에서 19세기 서울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서울시장과 농촌시장과의 연관성은 어떠하였을까. 서울시장은 농촌시장을 통합하는 高次市場이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통합의 범위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 점도 본 연구의 한 가지 과제이다.

2. 자료소개

본 연구의 주요 자료는 『明禮宮上下冊』이다. 이하 차하책으로 부른다. 明禮宮이란 궁방은 대궐 밖에 있는 왕실의 분실로서 궐내의 內·外嬪廚房으로 왕실이 소비하는 각종 식료를 공급하는 기구였다. 식료는 찰쌀[粘米], 적두, 녹두, 참기름 등 주로 떡과 과자를 만드는 재료였다. 주식 쌀[白米]은 호조와 선혜청에서 재정경로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입되지 않았다. 쌀이 구입되기 시작하는 것은 현물세가 폐지된 甲午更張 이후부터이다. 명례궁의 宮屬들은 사실상의 서울시장의 상인들이었다. 그들은 특정 재화를 조달하는 권리를 보유하였다. 권리는 매매되었다.

차하책은 명례궁이 지출한 현물과 동전에 관한 기록이다. 동전은 재정경로를 통해 戶曹와 宣惠廳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동전이 지출될 때 구입된 재화와 수량이 차하책에 적힌다. 여기서 물가정보가 추출된다. 물가를 알 수 있는 재화는 모두 6백 종이 넘는다. 본 연구는

그 가운데 20회 이상의 물가정보를 전하는 92개 재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奎章閣에 남아 있는 차하책은 1792년에 시작하여 1906년에 끝난다. 여기서는 1876년 開港 이전 시기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개항 이후가 되면 시장환경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차하책의 물가가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경제에 속하지 않은 貢價 또는 代錢價라는 물가가 있기 때문이다. 공가는 중앙정부가 貢人들에게 물자 조달의 대가로 지불하는 가격인데, 보통 市價의 3-10배나 달하였다. 대전가는 궁속들에게 식료나 공임을 지불할 때에 적용되는 고정가격을 말한다. 차하책의 물가가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는 1880년대의 『漢城旬報』와 1890년대의 『獨立新聞』에 보도된 서울 시중의 市價·時價와의 대조를 통해 알 수 있다. 대조의 결과 차하책의 물가는 市價와 時價였다.

3. 물가변동의 유형

분석 대상이 된 재화의 물가변동은 <표1>에서와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분류된 재화는 92종 가운데 67종이다. 나머지 25종은 분류가 용이하지 않아 제외되었지만, 분석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래 빈도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I 유형은 물가의 변동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다. 그 대극에 있는 것이 IV유형이다. 이 유형은 물가변동의 요인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억압적인 비경쟁시장이다. II와 III은 중간형태이다. II는 I에 가깝고 III은 IV에 가깝다. 크게 보아 I과 II를 경쟁시장, III과 IV를 억압적 비경쟁시장이라 이름할 수 있다.

<표1> 가격변동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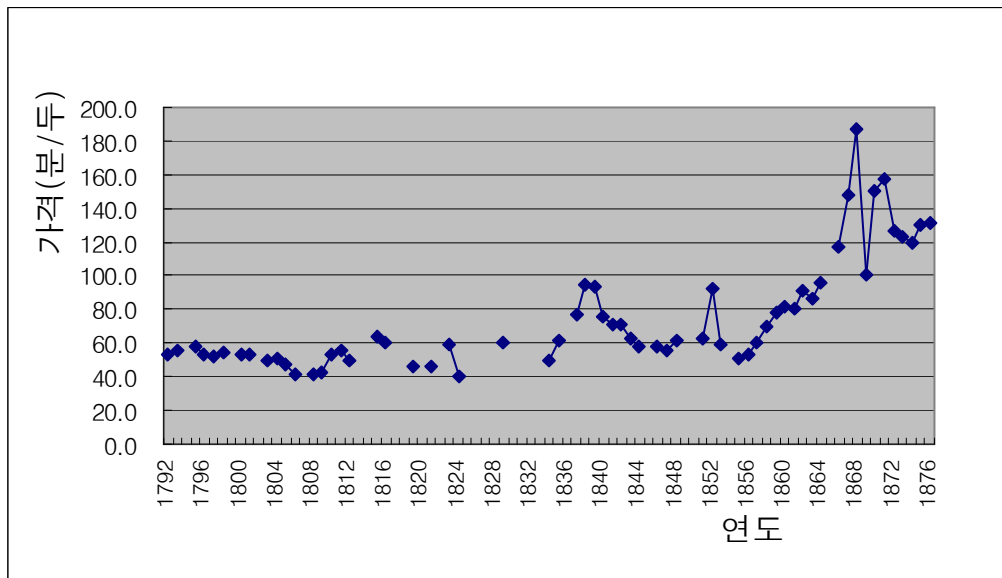
	I	II	III	IV
A. 곡물류	점미 적두 녹두 흑두 태	흑태		
B. 상업작물류	임자 흑임자		생강	
C. 과실류	생리	홍시	앵도 황행 모과 생물	실백자
D. 밀류	황밀	청밀 백청		
E. 채취조미료류	산사 오미자			호초 석이
F. 농가공류	진유2	진말	녹말 목말	진유1
G. 육류		아저증 중저증 숙우유		숙가저 우둔 연계
H. 해산류	염 감태		석어해 염진어	합회
I. 주류		탁주		
J. 의류		포 저포 백주	남염주 백모자	남염주
K. 지류	장지 장유지		소장지 백유지 상지	
L. 고류	곡초			공석
M. 염색기물류			세마미사 이박 설마 소통 뉴거리	
N. 목재류			연율죽 수죽 진장목 황회목 황백피	

Q. 잡류		사등	황족 승혜	마철
	17종	13종	26종	11종

1) 자유 경쟁시장

여기에 속하는 17종의 대표로서 찹미, 곧 찹쌀의 가격변동을 살핀다. 찹쌀은 떡과 과자의 원료로서 명례궁이 가장 많이 구입한 재화의 하나이다. <그림1>은 1792-1876년에 걸친 찹쌀의 연평균 가격이다.

<그림1> 찹쌀의 가격변동, 1792-1876



해마다 가격 수준이 같지 않다. 이는 찹쌀의 공급조건으로서 벼의 作況이 해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그 밖에 通貨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792년 이후 몇 차례 호조와 선혜청에서 동전을 주조하였다. 그렇지만 동전의 추가 주조가 서울의 찹쌀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직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다. 주조된 동전이 지방으로 옮겨져 유통되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확실치 않다. 화폐 요인이 가장 명확하게 관찰되는 것은 1867-1868년 當百錢이 잠시 유통되었을 때이다. <그림1>에서 1868년의 尖峰은 당백전 때문에 생긴 것이다.

찹쌀 가격은 183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두당 40-60분 사이에서 운동하는 定常性を 보였다. 이후 미가의 정상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그런 가운데 1850년대 중반까지 상승과 하강의 큰 파동을 그렸다. 이후 1855년부터는 지속적인 상승의 인플레이션으로 접어들었다. 이 같은 서울 찹쌀가격의 장기변동은 진라도 靈巖과 경상도 慶州 등지에서 확인된 농촌시장에서의 쌀값의 장기변동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찹쌀과 같이 해마다 需給 요인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재화는 모두 17종이다. 적두, 녹두, 흑두, 태와 같은 곡물류, 소금과 같은 해산류가 여기에 속하고 있다. 이들 재화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대량 소비하는 기초적 생활자료이다. 또한 생산자도 다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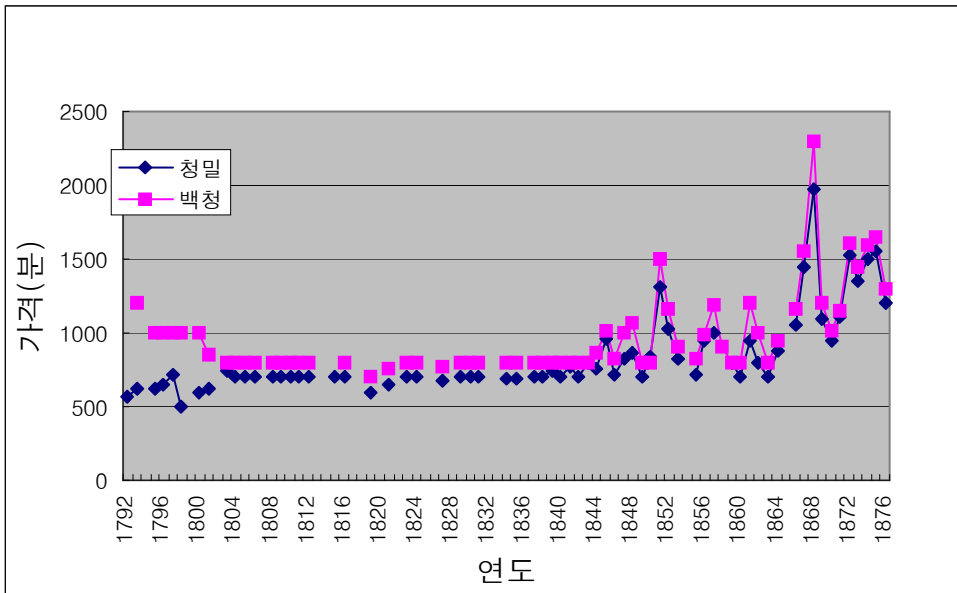
서 한 두 상인이 공급을 독점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이들 재화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인 자유 경쟁시장이다.

이들 재화에 있어서 서울의 市廩體制는 그리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예컨대 米廩은 거래 규모가 가장 컸겠지만, 서울을 대표하는 육주비진[六矣廩]에 들지 못하였다. 소금을 취급하는 鹽廩의 경우는 영업 이익이 크지 않아 役의 부담이 없는 無分廩에 불과하였다. 소금가격의 연변동이나 계절변동의 양상은 소금이 농한기에 농가의 부업으로 행해지는 도분장수의 형태로 공급되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그렇게 소금은 시전체제 밖의 亂廩의 형태로 공급되었다. 자유 경쟁시장에 속한 다른 재화도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2) 자유 단골관계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시장거래에 속하지만 일정 기간 가격이 일정 수준에서 고정된 경우를 말한다. 두터운 신뢰를 전제로 한 단골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소수여서 거래관계가 特定化하기 쉬운 高級財에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공급조건의 변화가 생겨 공급(비용)가격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새로운 균형가격을 정하기 위한 협상과정은 생략된다. 시장 환경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일정 기간 공급가격의 연별 변동치의 합이 새로운 가격을 협상하기 위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거래 쌍방은 일정 기간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켜 놓음이 보다 유리한 거래방식이 된다.

<그림2> 蜜類의 가격동향, 1792-1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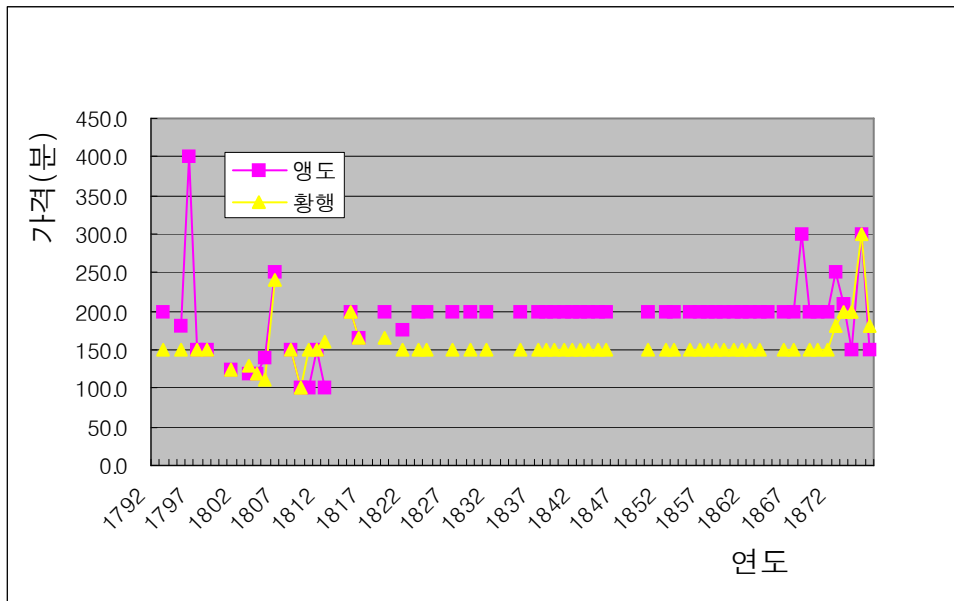


<그림2>에서 보는 清蜜·白清의 가격변동이 이러한 자유 단골관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1800년대 초까지 두 고급재의 가격은 해마다 자유롭게 변동하였다. 1804년 이후부터 두 고급재의 가격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기 시작한다. 1820년을 전후해서는 약간의 변동을 보이는데, 그에 상응하는 공급충격이 있었다고 보인다. 고정적인 단골가격이 해체되는 것은

1840년대 중반부터이다. 이 때부터, 실은 그보다 좀더 이른 시기부터 단골가격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환경이 불안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찹쌀가격이 1830년대 중반부터 이전의 定常性을 상실한 것과 일정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후 청밀·백청의 가격은 자유 경쟁시장의 가격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자유 단골가격의 유형에 속하는 재화는 청밀·백청을 포함하여 모두 13종이 있다.

3) 억압적 단골관계

<그림3> 앵도·황행의 가격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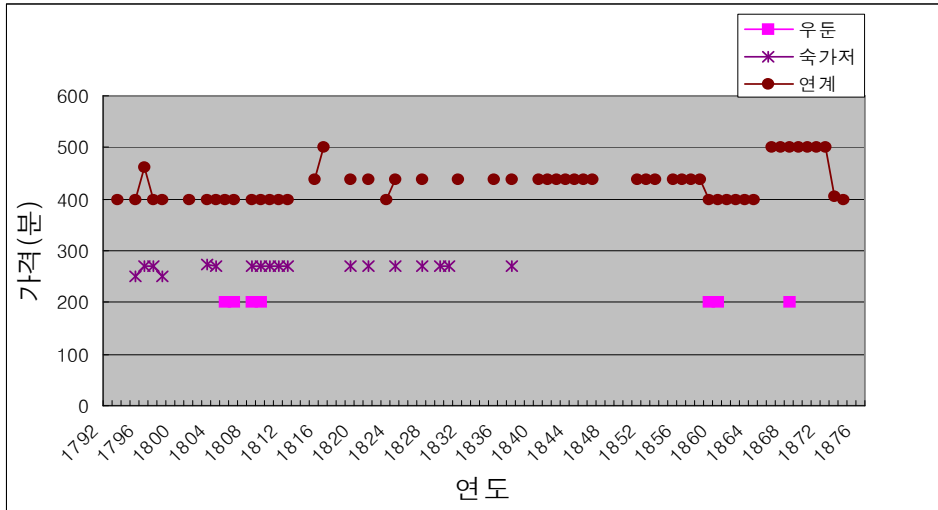


이 유형과 앞의 두 번째 유형과의 구분은 다분히 임의적이어서 정확한 기준을 대기가 어렵다. <그림3>으로 제시된 櫻桃와 黃杏의 가격은 1810년대까지만 해도 자유시장가격이었다. 두 실과류의 가격은 1820년대부터 고정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1860년대 말까지 전혀 변동이 없었다. 앞의 청밀·백청 가격은 1840년대부터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는데, 시장환경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럼에도 이 앵도와 황행의 가격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앞의 청밀·백청보다 억압적인 단골관계로 본 것이다. 거래관계의 억압적인 성격은 1867-1868년 당백전 유통기에 훨씬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황행 가격은 당백전으로 모든 재화의 물가가 뛰어 오름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에 묶여 있었다. 그러다가 1870년대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앵도 가격은 1868년에 50% 인상되었지만, 다른 재화 가격의 인상폭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예컨대 1868년 서울의 쌀값은 당백전 유통 이전에 비해 100%나 올랐다.

이 유형의 억압 단골관계는 앞의 자유 단골관계와 마찬가지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작아 거래관계가 특정화하기 쉬운 특질을 지닌다. 그런데 앞의 자유 단골관계에 비해 거래의 횟수와 규모가 훨씬 작아 신분이 높은 수요자가 재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 측을 보다 강하게 압박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재화는 앵도·황행을 포함하여 모두 26종이다.

4) 공납적 단골관계

<그림4> 육류의 가격변동, 1792-1876



이 경우는 처음 1792년부터 끝까지 가격이 일정 수준에 고정되어 있는 가장 억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림4>에 제시된 熟家豬와 牛臀의 가격은 거의 고정불변이다. 軟鷄의 가격은 다소간의 변동을 보이지만 역시 장기적인 固定性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868년 당백전 유통기에 일시 인상되었지만 1870년대 중반부터 다시 원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모든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시기에 당백전 이전 수준으로 가격이 회귀하는 것은 구매자로부터의 강력한 억압 때문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11종의 재화 가운데 가장 억압성이 강한 재화로서 胡椒, 馬鐵, 空石을 들 수 있다. 후추[胡椒]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이다. 해마다 일정 시기에 강원도 月精寺가 일정 양의 후추를 명례궁에 공급하였으며, 그에 대해 명례궁은 고정가격을 지불하였다. 형식적으로는 대가가 지불되는 시장거래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공납관계와 다를 바 없다. 무슨 이유인지 월정사의 후추 공급은 1852년부터 중단되었다. 마철은 명례궁이 보유하고 있는 卜馬 2필의 편자를 교체하는 비용인데 편자의 가격이 1792년부터 1906년까지 전혀 변함이 없다. 1868년의 당백전 유통기는 물론, 1883년 이후 당오전 유통기에도, 1895년 이후 백동화 유통기에도 마철의 부당 가격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야말로 강제된 노역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공납적 단골관계라 이름 붙였다.

5) 유형별 비중

<표2>는 1851-1853년의 차하책을 대상으로 명례궁이 서울시장에서 구입한 모든 재화를 위와 같은 네 가지 물가변동의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표4-3>의 67종에 속하지 않는 재화라도 물가변동의 양상을 살펴 분류되었다. V는 드물게 구입된 재화로서 분류에서 제외된 것들이다.

<표2> 서울시장의 유형별 구성, 1851-1853

연도	건수						금액					
	I	II	III	IV	V	합	I	II	III	IV	V	합
1851	55 (34.8)	31 (19.6)	21 (13.3)	33 (20.9)	18 (11.4)	158 (100)	201,612 (65.4)	75,930 (24.6)	11,690 (3.8)	7,977 (2.6)	11,256 (3.6)	308,475 (100)
1852	89 (42.4)	36 (17.1)	48 (22.9)	30 (14.3)	8 (3.8)	210 (100)	238,954 (50.9)	106,040 (22.6)	62,663 (13.3)	7,998 (1.7)	54,075 (11.5)	469,730 (100)
1853	33 (20.0)	41 (24.8)	45 (27.3)	28 (17.0)	18 (10.9)	165 (100)	196,427 (41.7)	171,960 (36.5)	69,498 (14.8)	5,808 (1.2)	27,415 (58)	471,108 (100)
합	177 (33.2)	108 (20.3)	114 (21.4)	91 (17.1)	44 (8.3)	533 (100)	636,993 (51.0)	353,930 (28.3)	143,851 (11.5)	21,783 (1.7)	92,746 (7.4)	1,249,313 (100)

3년 총 533건의 거래가 있었다. I 과 II의 경쟁시장에 속하는 것이 285건, 53.5%를 차지하여 III과 IV의 비경쟁시장보다 약간 많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3년간 총 125만 냥 가운데 99만 냥, 79.3%가 I 과 II의 경쟁시장에 속하고 있다. 이로부터 19세기 서울시장은 대체로 경쟁시장으로서 특질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꽤나 근대적인 시장경제에 근접한 발달된 시장경제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건수에서는 비경쟁시장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신분제와 공납제가 지배하고 있는 전근대 시장으로서의 특질을 안고 있었다. 재화의 생산이 희귀하거나 공급이 불안정할 경우 지배계층은 억압적인 공납제적 특질의 관계로 공급자를 묶어둠으로써 재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하였다.

또한 경쟁시장과 비경쟁시장은 서로 중첩하였고 또 유동하였다. 예컨대 참기름[진유]라는 동일 재화는 I의 자유 경쟁시장에도, IV의 공납적 단골관계에도 속하였다. 장지와 소장지는 크기만 다를 뿐 동질의 재화인데도 I의 자유 경쟁시장과 III의 억압적 단골시장에 동시에 속하였다. 이런 경우는 동일 재화라도 공방과 상인간의 인격관계에 따라 거래방식이 달라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 또한 서울시장이 지니는 전근대 시장의 한 특질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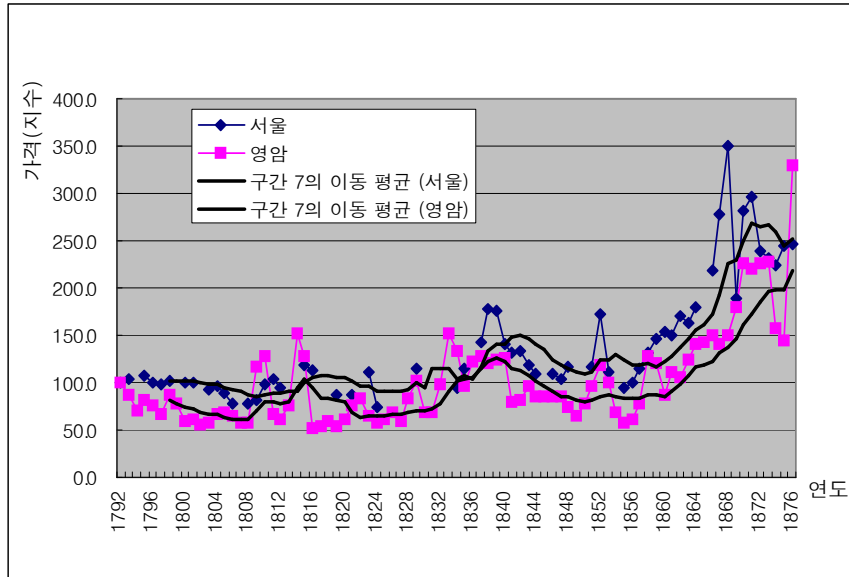
4. 서울시장과 농촌시장

19세기 서울시장과 농촌시장은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었을까. 여기서는 서울의 찹쌀 가격과 전라도 영암의 쌀 가격의 상호관계를 살펴기로 한다. 서울의 쌀 가격을 취하지 않은 것은 찹쌀 가격만큼 시계열이 훌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쌀 가격과 찹쌀 가격의 움직임은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림5>은 1792-1876년간 서울의 찹쌀 연평균 가격(分/斗)과 전라도 영암의 벼[租] 연평균 가격(兩/石)을 비교한 것이다. 모두 1792년 가격을 100으로 한 지수시계열과 그것의 7개년 이동평균이다.

장기적으로 두 이동평균선은 평행을 그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두 시장에서 쌀가격은 동일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렇지만 두 평균선의 격차가 좁아지는 경향은 보이지 않아 시장통합의 정도가 개선되고 있었다고 말하기 힘든 형편이다. 1810년대와 1830년대의 두 차례에 걸쳐서는 두 평균선이 서로 엇히고 있다. 가격 변동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단기적으로 두 시장은 긴밀한 통합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867-1868년 서울시장에

서 쌀값은 당백전이라는 통화요인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동시기 영암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없었다. 이 역시 두 시장이 잘 통합된 상태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림5> 서울과 영암의 쌀값 동향, 1792-1876



전술한대로 서울시장의 쌀값 변동은 해마다 작황이 달랐기 때문이다.(1867-1868년 제외) 연도별 작황이 어떠했는지는 『度支田賦考』에 실린 도별 出稅結果 災結의 크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제 이 서울시장의 쌀값과 도별 출세결이라는 두 변수를 활용하여 서울시장의 쌀값 변동에 영향을 준 생산충격의 지역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판별해 보자.

$$\Delta \ln(P_{st}) = b_1 \Delta \ln(Q_{nt}) + b_2 \Delta \ln(Q_{rt}) + \varepsilon_t$$

P_{st} 는 서울(명례궁) 점미의 미곡년도 가격

Q_{nt} 는 해당 년도 전국 경지면적의 총합

Q_{rt} 는 해당 년도 경기·황해·충청의 경지면적의 합

서울시장의 찹쌀가격[자연로그치]의 연별 변동치과 전국 및 경기·황해·충청 3도의 경지면적[자연로그치]의 연별 변동치 간의 회귀係數와 그 有意水準을 구하는 모형이다. 회귀 계수 b_1 과 b_2 는 경지면적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늘어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기 때문에 음(-)의 부호로 기대된다. 두 변수의 기간은 1855년 전후하여 가격변동의 양상과 원인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1792-1855년과 1856-1876년으로 구분되었다. 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3> 미가변동에 대한 생산충격의 영향 분석

기간	지역	회귀계수값	t값
1792-1876	전국	0.7483	0.8321
	경기·황해·충청	-1.9609	-2.6596**
1792-1854	전국	0.7691	0.9399
	경기·황해·충청	-1.6274	-2.4220**
1855-1876	전국	2.7158	0.6233
	경기·황해·충청	-5.4926	-1.5517*

비고: **는 1% 유의수준, *는 10% 유의수준.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경지면적의 가격변동에 대한 회귀계수는 전 기간에서나 둘로 나뉜 어느 기간에서도 부호가 양(+)일 뿐만 아니라 유의하지도 않다. 반면에 경기·황해·충청도 경지면적의 회귀계수는 기대대로 음(-)의 값이면서 1% 또는 10% 수준에서 유의하다. 즉, 서울시장의 쌀 가격은 전국적 생산충격보다는 경기·황해·충청의 생산충격에 의해 결정되었다. 다시 말해 서울의 미곡시장은 전국적으로 잘 통합된 시장에 속하였지 않았다. 서울시장은 농촌시장의 고차시장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서울시장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으로 그 통합의 범위가 제한되었다.

이 같은 분석의 결과는 선행하는 연구와 모순되고 있다. 박이택·이영훈¹⁾에 의하면 1780-1846년간 전라도 영암의 농촌시장에 있어서 벼 가격의 변동은 전라도 경지면적의 변동으로 대변되는 지방적 생산충격이 아니라 전국 경지면적의 변동으로 대변되는 전국적 생산충격에 보다 깊이 규정되었다. 이 사실은 전라도 영암의 농촌시장이 전국적으로 잘 통합된 시장에 포섭되었던 것으로 해석되었다. 서울시장에 쌀이 부족해지면 영암의 쌀이 서울까지 올라가는 시장관계가 거기서 설정되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회귀분석의 결과는 그러한 이전의 연구성과를 지지하고 있지 않다. 위의 분석은 서울과 거리가 먼 전라도와 경상도의 미곡은 어디까지나 재정경로를 통해 서울로 올라왔을 뿐이지, 시장경로라면 서울과 가까운 경기·충청·황해만으로도 충분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이 상반하는 두 연구성과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는 장래의 연구과제이다.

그와 더불어 개항 이전 꽤나 경쟁적이던 서울시장이 개항 이후 어떠한 양상으로 변해 갔는지를 추적하는 것도 장래의 연구과제이다. 개항과 더불어 서울시장은 더욱 근대적 형태의 시장경제로 발전해 갔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드시 그러했을지는 단언할 수 없다. 갑오경장 이후 현물세가 폐지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왕실은 쌀과 면포의 기초적 생활자료를 시장에서 구입해야 했다. 그 경우 자유 경쟁시장이 아니고 억압적인 단골관계의 방식을 취했을 수가 있다. 이 점을 포함하여 서울시장이 근대적 시장경제로 이행했던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1) 朴二澤·李榮薰, 「18~19세기 米穀市場의 統合과 分裂: 靈巖의 米價變動에 대한 生産衝擊의 影響分析」, 『經濟學研究』50-2, 2002.